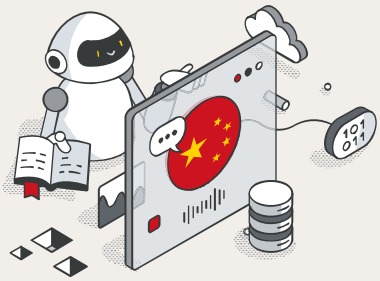


WEEKLY

China AI Vibe

2025.10.22

박연주 yeonju.park@miraeasset.com 정세훈 sehoon.jung@miraeasset.com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바이트댄스, 글로벌 AI 챗봇 시장 공략 본격화

-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AI 챗봇 서비스 'Cici'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사용자 기반 확대 중**
- **해외 모델 채택,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 틱톡과의 시너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
- **'Cici'는 중국 AI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공략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타 기업에게 참고 사례가 될 것**

바이트댄스, AI 챗봇 서비스 'Cici'를 통해 글로벌 입지 확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글로벌 AI 챗봇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전용 AI 챗봇 'Cici'는 23년 10월부터 동남아시아, 멕시코, 영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데,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남아시아 3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810만회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 서비스인 구글의 Gemini (1,390만)을 넘어섰으며, 챗GPT(1,980만)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에서는 일주일 간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한데다, 영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딥시크 출현 이후 중국 AI 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와 수많은 응용 서비스의 출현 그리고 중국 기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 영향도 있겠지만 딥시크의 AI Assistant 서비스가 출시 이후 3월부터 다운로드 수가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Cici는 연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바이트댄스 Cici가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와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갈 수 있었던 요인은 1) 해외 모델 채택 전략, 2) 대규모 마케팅 투자, 3) 틱톡과의 시너지라고 판단한다.

해외 모델 채택과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에 연착륙

Cici는 바이트댄스의 자체 AI 모델 Doubao를 사용하는 대신 GPT와 Gemini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한다. 중국 AI 모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하여도 글로벌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Cici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내하는 대신 이미 검증된 글로벌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추론/환각 최소화 등 성능 측면에서 '품질 보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영어/라틴어 등 다국어 튜닝이 잘 되어있는 글로벌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현지화 과정에서 품질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바이트댄스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단기 수익화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메타 광고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10월에만 400개 이상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사용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틱톡의 존재는 최대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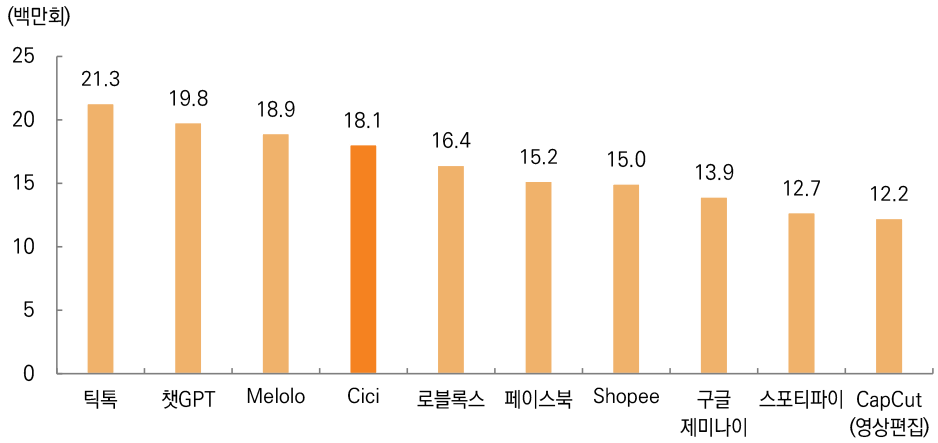
무엇보다 가장 큰 차별 포인트는 바로 틱톡과의 시너지이다. 틱톡은 방대한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추천알고리즘/사용자 행동분석에서 강점을 가진만큼 바이트댄스는 이를 분석해 Cici의 사용자패턴 학습과 최적화에 적용함으로써 맞춤 응답 생성 능력, 참여 유도 능력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일상형 앱으로 발전하여 방대한 사용자 참여 시나리오를 창출할 수 있고, 이는 딥시크, 구글, 오픈AI와는 달리 틱톡이라는 글로벌 SNS를 보유한 바이트댄스만의 구조적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틱톡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시태그 캠페인(#ciciai)을 통해 인지도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Cici의 흥행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국 기업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한편 SCMP는 바이트댄스의 자체 모델 Doubao의 일일 토큰 사용량이 3월 12.7조 개에서 9월 30조 개 이상으로 6개월 사이 2.5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Doubao 서비스 수요 증가와 볼케이노 엔진(바이트댄스 클라우드 플랫폼) 인프라 확충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Omdia에 따르면 25년 상반기 중국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볼케이노 엔진 점유율은 14.8%로 알리바바(35.8%)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Seedream(이미지 생성모델), Seedance(영상 생성모델)부터 AI 챗봇까지 다방면 걸쳐 AI 경쟁력을 입증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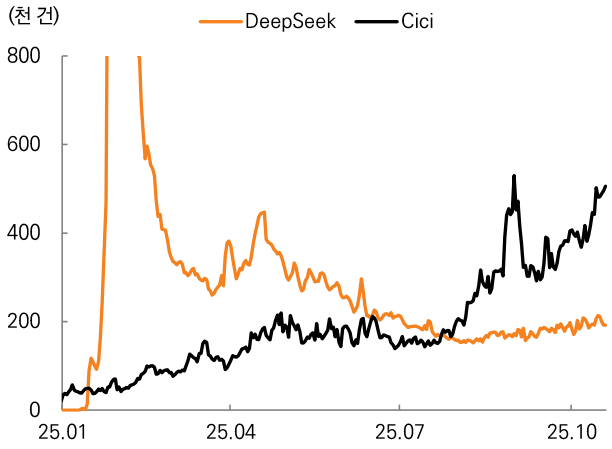
특히 Cici의 글로벌 성장은 중국 AI 서비스가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준비하는 중국 업체에게 벤치마크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이미 자사 사업 내 일상앱을 보유한 업체들에게 AI 챗봇을 기존 서비스와 어떻게 결합하여 더 많은 사용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 및 주요 기업들이 전략시장으로 선정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시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동남아시아 국가 다운로드 수 상위 10개 앱 (7.21~10.18)



주: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 국가. 자료: 센서타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딥시크 vs 바이트댄스 글로벌 AI 챗봇 다운로드 수 추이



주: 중국 제외, 자료: 센서타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Cici' AI 챗봇

자료: Cic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AI 주간 주요 뉴스

산업

알리바바, GPU 사용량 82%까지 줄일 수 있는 GPU 인프라 시스템 공개하며 주가 아웃퍼폼

지난 한 주(10/15~21), 중국 빅테크 중 9월 한달 간 랠리를 이어오다 재점화된 미중 관세 갈등과 AI 버블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알리바바(9988.HK)**는 GPU 사용량을 최대 82%까지 줄일 수 있는 새로운 GPU 인프라 시스템 'Aegaeon'을 공개하며 AI 사업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높이며 지난 한주 +6.1%로 반등. 이외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유비테크(9880.HK)**가 20일 1억 2,600만 위안 규모의 자사 휴머노이드 Walker S2의 신규 수주 발표가 나오며 +6.8%로 아웃퍼폼. *(Wind)*

중국 생성AI 사용자 5억 1,500만명 돌파. 6개월만에 2배 증가

20일 SCMP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생성 AI 서비스 이용자 수가 25년 상반기 5억 1,500만명으로, 24년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약 36.5%가 AI를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세부적으로는 40세 미만 사용자가 74.6%, 고등교육 학위를 가진 사용자가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성AI 사용자 수 증가는 정부의 AI+ 전략 시행과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 딥시크,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자국 기업들의 연이은 고성능 모델 출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출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10/20 SCMP)*

알리바바 신규 GPU 인프라 시스템 'Aegaeon', GPU 사용량 82% 절감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새로운 GPU 인프라 시스템 'Aegaeon'을 공개하며 모델 실행에 필요한 GPU 수요를 82%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천개의 AI 모델을 제공하지만, 실제 호출량은 일부 모델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른 모델들은 간헐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모든 GPU가 개별 모델에 할당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GPU가 여러 모델을 처리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알리바바의 'Aegaeon'은 단일 GPU로 최대 7개의 모델을 지원하여 모델 지연시간을 97% 단축하고 GPU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베타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수십 개의 LLM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GPU 수가 1,192개에서 213개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10/18 SCMP)*

젠슨 황, 엔비디아 중국 점유율 95%에서 0%로

10월 17일 미국 시타델 증권이 개최한 행사에서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0%로 떨어졌으며, 엔비디아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100%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을 잃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배제된 것은 중국에도 좋지 않겠으나, 미국에 오히려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언급했다. 또한 중국은 전세계 연구자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연구자들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AI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라는 의견을 전했다. *(10/17 First Financial)*

중국 25년 상반기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전년대비 122% 성장

IDC에서 발표한 중국 지능형 컴퓨팅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AI IaaS) 트래커에 따르면, 25년 상반기 중국 전체 AI IaaS 시장은 높은 AI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2% 성장한 198억 7천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성AI IaaS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19.3% 성장한 166억 8천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21 36kr)*

애플, 중국 내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준비 중

18일 상하이에서 열린 글로벌 자산 관리 포럼 2025에서 애플의 CEO 팀 쿡은 현재 중국에서 애플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10/20 SCMP)*

센스타임-캠브리콘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중국 '칩 자립화'를 위한 기업 간 협업 활발

중국 AI 모델 및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센스타임(0020.HK)**과 중국 칩 개발업체 **캠브리콘(688256.SH)**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기술 전문성과 산업 자원을 결합하여 자국 내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칩-모델로 이어지는 수직 어플리케이션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중국 국무원이 AI+ 정책을 발표한 이후, 중국 AI 산업 전반에서 자국 기업과의 호환성 향상을 위한 협약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10/17 Digitimes)*

알리바바, 대화형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 진행 중

20일 현지 언론들은 알리쿼크(AliQuark)가 'Plan C'라는 코드명의 대화형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비밀리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고위 임원진을 중심으로 이미 오랫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 왔으며, 기사에서는 첫번째 결과물이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다루고 있다. 다만 이는 중간 결과물일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가 AI 챗봇 분야에서 가장 선전하고 있는 바이트댄스를 겨냥한 프로젝트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10/20 Sina)*

유비테크, 1억 2,600만 위안 규모 휴머노이드 'Walker S2' 공급계약 체결

10월 16일 유비테크는 '광시(Guangxi) 임바디드 인텔리전스 데이터 수집 및 테스트 센터 설비 구매/설치 프로젝트' 수주를 발표했다. 수주 규모는 1억 2,600만 위안으로 자사 휴머노이드 Walker S2 공급을 곧 시작하여 연내 납품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유비테크의 누적 수주 계약 금액은 6억 3천만 위안을 돌파했다. *(10/16 UBtech)*

포니AI, 위라이드 홍콩 상장 승인 획득

15일 블룸버그는 중국 자율주행 업체 **포니AI(PONY US)**와 **위라이드(WRD US)**가 홍콩 증시 상장 승인을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업은 각각 1억 200만 개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나, 이외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17일 포니AI는 유럽 내 로보택시 서비스 개시를 위해 스텔란티스와 레벨4 자율주행 공동 개발 파트너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수개월 내 스텔란티스 푸조 e-트래블러 모델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차량을 출시하고 26년부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15 Bloomberg, 10/17 포니AI)*

유니트리, 인간과 가장 흡사한 신규 휴머노이드 H2 공개

10월 20일 유니트리는 인간의 얼굴 형태를 한 신규 휴머노이드 모델 'H2'를 공개했다. 키 180cm, 무게 70kg의 이 모델은 펀치, 사이드킥과 같은 여러 신체 부위의 협응과 균형 제어가 요구되는 동작에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며 360도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레이저 레이더와 바이오닉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회사는 아직 해당 모델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와 세부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10/20 Beijing News)*

즈위안로봇, 수억 위안 규모 휴머노이드 수주 확보

10월 16일 즈위안 로봇은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바퀴로 구동하는 산업용 로봇 '제니 G2'를 공개했다. 해당 모델은 이미 Longqi Technology로부터 수억 위안 규모의 주문을 확보하여 첫 상용 배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G2는 고정밀 힘 제어가 가능하며 양쪽 로봇팔과 19개 자유도의 로봇손을 갖추었으며, 3D 촉각 감지가 가능하다. 칩은 엔비디아의 잿슨 토르 칩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10/17 NBD.com)*

정부 정책/규제

중국 공신부, 초저지연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발표

10월 16일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도시권 mm초 컴퓨팅 특별 행동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내 AI 컴퓨팅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기존 인프라의 데이터전송 효율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지연시간 최소화가 주요 과제로 부각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정책은 27년까지 주요 도시에 컴퓨팅센터간 1mm초 미만의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조/금융/의료 등 산업 전반의 AI 응용 지원을 목표로 하며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3대 국영 통신사가 정책 이행을 주도할 예정이다. *(10/17 중국전문가포럼)*

기술

텐센트, 훈련 없이 모델 성능 향상시키는 기술 공개

텐센트 연구진은 재훈련 과정없이 경험을 활용하여 AI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Training-Free' 기술을 공개했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델 학습방법인 강화학습은 한 문제에 대해 여러 답안을 생성하고 각 답안의 점수/보상을 비교하여 최적의 결과를 모델 파라미터에 조정하는 GRPO 방식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일일이 파라미터를 조정하다 보니 과정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텐센트의 접근방식은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보상을 통해 얻어낸 규칙을 외부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후, 다음 추론 시 이를 불러와 프롬프트 앞부분에 붙이거나 토큰 Prior(모델이 어떤 단어를 먼저 떠올릴 확률을 미리 조정해주는 장치)로 주입해 출력을 유도한다. 즉, 새로 학습한 내용을 머릿 속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노트에 적어두고 필요할 때 그 노트를 보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접근방식은 파라미터 조정이 생략되다 보니 프로세스가 늘어나거나 계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10/17 SCMP)*

딥시크, 시각 인식으로 텍스트 압축하는 멀티모달 모델 Deepseek-OCR 공개

21일 딥시크는 텍스트 토큰 대신 시각정보로 문서를 압축해 훨씬 적은 수의 토큰만으로 길고 복잡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 'Deepseek-OCR'을 공개했다. 기존 LM은 시퀀스 길이에 따라 계산량이 제곱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OCR은 텍스트를 텍스트 자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표현하면 훨씬 적은 토큰으로도 동일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모델로,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토큰 사용량을 7~20배까지 줄일 수 있으면서 10배 미만 압축 시 100%, 10배 압축시에는 97%의 정밀도로 우수한 이미지 압축 성능까지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델은 전달받은 이미지를 압축 버전으로 변환하는 DeepEncoder(인코더)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답변을 출력하는 Deepseek3B-MoE-A570M(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문서를 전달하면 문서 페이지를 스크린샷/이미지로 변환한다. 그 다음 인코더가 이미지를 분석하고 레이아웃과 문맥을 보존한 압축 버전을 생성한다. 그 다음 디코더가 전달받은 압축 버전과 질문을 함께 받아 추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10/21 SCMP, Deepseek)*

중국 AI Pee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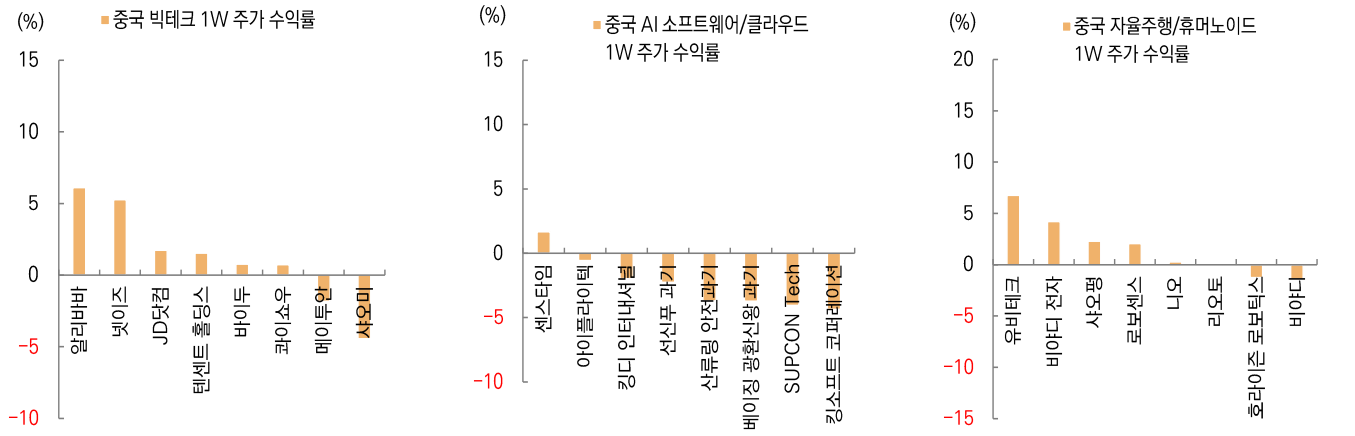
중국 AI 관련 기업 밸류에이션

(백만위안, 위안, 배, %)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위안)	영업지표 (25F)				밸류에이션 (25F)				주가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EPS	PER	PBR	PSR	EV/ EBITDA	1W	1M	6M	YTD	1Y
샤오미	1,209	487,888	45,615	41,547	1.6	26.6	4.7	2.5	40.0	-4.4	-18.1	10.8	34.7	91.6
넷이즈	761	114,897	37,646	35,725	11.3	19.4	3.0	6.6	20.7	5.3	1.4	51.7	73.6	91.4
알리바바	3,151	1,001,910	141,105	131,593	6.9	21.9	2.9	3.1	15.7	6.1	3.8	51.9	100.4	68.8
텐센트 홀딩스	5,771	742,545	249,653	216,829	23.7	24.3	4.6	7.8	21.6	1.5	-1.9	37.7	51.2	49.8
메이투안	590	377,736	5,896	4,232	0.7	127.2	2.9	1.6	10.5	-1.8	-9.2	-29.3	-36.4	-46.7
JD닷컴	410	1,319,535	13,347	24,096	7.6	15.5	1.5	0.3	6.9	1.7	-7.3	-7.6	-5.4	-17.0
콰이쇼우	327	142,683	18,732	17,585	4.1	17.0	3.8	2.3	15.0	0.7	-0.3	50.9	82.7	63.4
바이두	323	130,086	15,854	19,926	7.2	14.8	1.1	2.5	8.4	0.8	-10.6	42.3	42.1	29.1
킹디 인터내셔널	53	7,033	-14	116	0.0	417.6	6.1	7.5	415.9	-2.0	-10.1	26.4	74.8	67.0
센스타임	94	4,873	-3,194	-2,665	-0.1	-32.2	3.9	19.3	-26.2	1.7	-11.3	73.6	63.1	52.8
킹소프트	46	10,680	3,009	1,726	1.2	24.3	1.7	4.3	0.0	-4.4	-7.0	-10.3	-2.5	23.5
아이플라이텍	122	27,920	754	914	0.4	133.1	6.6	4.4	45.9	-0.6	-0.4	15.9	8.9	13.9
산류링 안전과기	73	8,602	-65	-100	0.0	-725.9	2.5	8.4	-342.1	-3.7	-4.7	-0.3	0.3	19.6
선신푸 과기	45	8,346	400	380	0.9	117.6	4.7	5.3	256.8	-2.3	-11.2	17.3	84.2	55.8
SUPCON Tech	42	9,783	1,295	1,214	1.5	34.7	3.8	4.3	36.4	-4.1	5.8	10.4	7.3	2.4
베이징 광환신왕 과기	24	7,725	462	378	0.2	64.0	1.9	3.1	21.2	-3.7	-7.2	-5.3	-7.8	25.2
비야디	1,006	936,393	50,236	44,597	4.9	19.4	3.7	1.0	7.4	-1.4	-8.5	-71.6	-61.0	-63.8
리오토	186	137,405	6,034	6,223	2.9	27.2	2.3	1.4	12.9	-0.1	-14.0	-3.3	-7.8	-9.9
샤오펑	161	84,866	-2,538	-1,437	-0.7	-112.9	5.1	1.9	-29.0	2.3	0.3	14.8	80.9	104.9
니오	131	92,913	-16,167	-15,989	-6.6	-7.5	-126.4	1.4	-8.9	0.3	-8.5	96.2	54.2	34.3
비야디 전자	91	191,763	4,909	4,985	2.2	16.6	2.3	0.5	8.0	4.2	-3.1	25.5	-4.4	16.6
호라이즌 로보틱스	126	3,605	-2,757	-2,670	-0.2	-43.1	12.0	35.0	0.0	-1.3	-17.5	57.4	139.2	-
로보센스	17	2,294	-294	-219	-0.5	-72.5	5.4	7.6	-26.1	2.1	-16.7	18.3	16.7	110.6
유비테크	63	1,895	-935	-974	-2.1	-59.5	32.1	33.5	0.0	6.8	4.9	90.8	144.6	49.8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중국 AI 관련 기업 주간 주가 수익률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